

# 어머니의 감독, 활동공유, 교육지향행동, 스마트폰 허용여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Shared Activities, Education-Oriented Behavior, and Allowing Children to Own Smart-Phones on the Smart Media Usage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김윤경<sup>1</sup> 박주희<sup>2</sup> 오소정<sup>3</sup>

Yoon Kyung Kim<sup>1</sup> Ju Hee Park<sup>2</sup> So Chung Oh<sup>3</sup>

## ABSTRACT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2095619).

\*\* 이 논문은 2020-21년 SSK-Networking 제 2차 합동 심포지엄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경진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제1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 2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juheepark@yonsei.ac.kr)

### 3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shared activities with children, maternal education-oriented behavior, and allowing children to own smart-phones on smart media usage patterns based on smart-phone usage time and purpose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315 second-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e 9th wave of PSKC.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he three-step estimation approach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latent profile and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on the profile.

**Results:** Four latent profiles were identified: 'High-level usage & Entertaining oriented,' 'Moderate-level usage & Social/entertaining oriented,' 'Moderate-level usage & Learning oriented,' and 'Low-level usage.' Additionally, results showed that each profile can be predicted by maternal monitoring, education-oriented behavior, and permitting children to own smart-phones.

**Conclusion/Implications:** Our outcomes suggest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mart media usage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nsidering both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smart media and purposes of uses. Further, it is helpful for mothers to monitor children's daily activities, support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nd take the role of gatekeeper for smart media as a way of appropriate guidance for their children's use of smart media.

**key 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 smart media usage pattern, latent profile analysis, parenting behaviors

## I.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으며(박현지, 이

강원, 진승후, 2020) 산업, 교육, 문화, 여가 등 많은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단 성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크게 교육과 여가의 측면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졌던 여가활동들이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 미디어 활동들로 대체되면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이 크게 용이해졌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를 아동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용시간, 최초 이용시기, 이용빈도와 같은 이용의 시간적 차원을 주로 다루었다(김종민, 최은아, 2019; 이귀옥, 2020; 한효정, 장영은, 2020; Gentile, Coyne, & Walsh,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관련된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아동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등 복합적인 이용패턴을 반영해주지 못한다. 가령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이용목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게임에만 몰두할 수도 있고, 게임과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동등하게 할애할 수도 있으며, 또는 게임, 학습, 동영상 시청, 정보검색에 고르게 시간을 분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용시간이라는 한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과 이용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 목적을 함께 다루는 데 유용한 방법은 개인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이다. 이 분석은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들이 개인 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집단 내에서 동질적이지만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하위집단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Laursen & Hoff, 2006). 즉,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은 정보검색, 학습, 동영상 시청,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복합적인 이용패턴에 따른 이질적인 하위집단들을 확인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적 특징과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한 소수의 선행연구들(노언경, 2019; 최정원, 전현희, 오현정, 홍세희, 2020; Suk, Cho, & Jeong, 2017)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발달특성이 반영된 미디어 이용패턴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

로, 각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주요한 특징은 SNS 이용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목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미디어 이용정도가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미디어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주요 발달과업이며 또래 영향력이 증가하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Coleman, 2008). 이처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이용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집중한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5년 25.5%에서 2018년 37.8%로 증가하였고, 이용시간도 2015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는 등(김윤화, 2018)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연령이 하향화 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더 어린 연령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이질적인 하위집단들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개입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은 이 시기의 중요한 환경적 맥락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또래나 학교의 영향력이 증가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부모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약 62%가 개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김윤화, 2018) 역시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선행연구결과(임양미, 2014; Nathanson, 2015; Sanders, Parent, Forehand, Sullivan, & Jones, 2016; Vaala & Bleakly, 2015)들은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자녀의 활동에 대한 감독, 자녀와의 활동공유, 그리고 자녀의 학업을 위한 교육지향행동은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그리고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를 중심으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감독이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독은 부모가 아동이 누구와,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허묘연 2004). 어머니의 감독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며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바람직한 범위에서 자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아동이 특정 목적에 편중하여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목적의 측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이용하는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감독과 목적별 인터넷 이용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Heim, Brandtzieg, Kaare, Endestad, & Torgersen, 2007; Vaala & Bleakly, 2015)에서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채팅, 온라인 게임을 더 적게 하는 반면, 숙제를 위한

정보검색 등 건설적인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감독이 휴대전화 의존과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임양미, 2014)에서는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저의존·가족소통형과 중의존·다활용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며, 오락보다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어머니의 관심과 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구현영, 김은정, 2015; 민미희, 2015; 이성대, 엄동문, 2012; Sanders et al., 2016) 어머니의 감독은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하는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또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학업, 여가, 신체활동, 집안일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는 활동의 보조수단으로서 스마트 미디어를 자녀와 함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녀와 같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학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스마트 미디어로 검색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면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혼자서 스마트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와 같이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부모의 도움 하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Barron, Martin, Takeuchi, & Fithian, 2009; Simpkins, Davis-Kean, & Eccles, 2005)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역으로 자녀와 공유하는 활동들이 적거나 없는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신 자녀 혼자 미디어를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활동보다는 미디어 이용에 더 의존하도록 하여(Nathanson, 2015) 결과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행동인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현주, 이재분, 이해영, 2003)은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한 예측요인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이며 이전과는 달리 학습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학습을 중요시 하고(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전은옥, 최나야, 2017), 스마트 미디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학업을 위한 검색과 교육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다수(약 42%)를 차지하였고, 스마트 미디어가 학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정도가 2/3 정도(약 66%)를 차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김지현, 신혜영, 2013; 이창호, 김기현, 2017).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함과 동시에 과도한 몰입을 일으켜 학업에 방해가 되는 오락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는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교육지향행동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학습을 중요시하는 가정 내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과 정보검색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지도 하에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학습의 경우 게임이나 동영상처럼 자극적이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적으므로 아동이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지 여부도 아동이 스마트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의 경우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극대화되어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에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자기 소유의 스마트 미디어가 있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 쉬운 상황에 있거나 반대로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는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접근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Sanders et al., 2016). 어머니의 직접적인 미디어 이용 통제는 유아기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기로의 전이기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이용시간의 변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많이 이용하는 집단과 거의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확인될 수 있다. 아동이 개인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면 미디어 이용의 통제권을 어머니가 아닌 아동 자신이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자유롭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용하는 시간동안 다양한 목적보다는 제한된 한두 가지 목적에 치중하고(Livingstone & Helsper, 2007)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고학년 아동의 이용패턴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은 이는 이 시기의 중요한 환경적 맥락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목적에 근거하여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그리고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 여부가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아동의 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이용목적에서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들(김보미, 장경은, 오현미, 2019; 김윤화, 2018; Genteile, 2009; Kostyrka-Allchorne, Cooper, & Simpson, 2017)에 근거하여 아동의 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특징적인 이용패턴을 확인하고, 이용패턴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밝힘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 지도방법을 고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목적(학습, 정보검색, 게임/엔터테인먼트, SNS)에 근거한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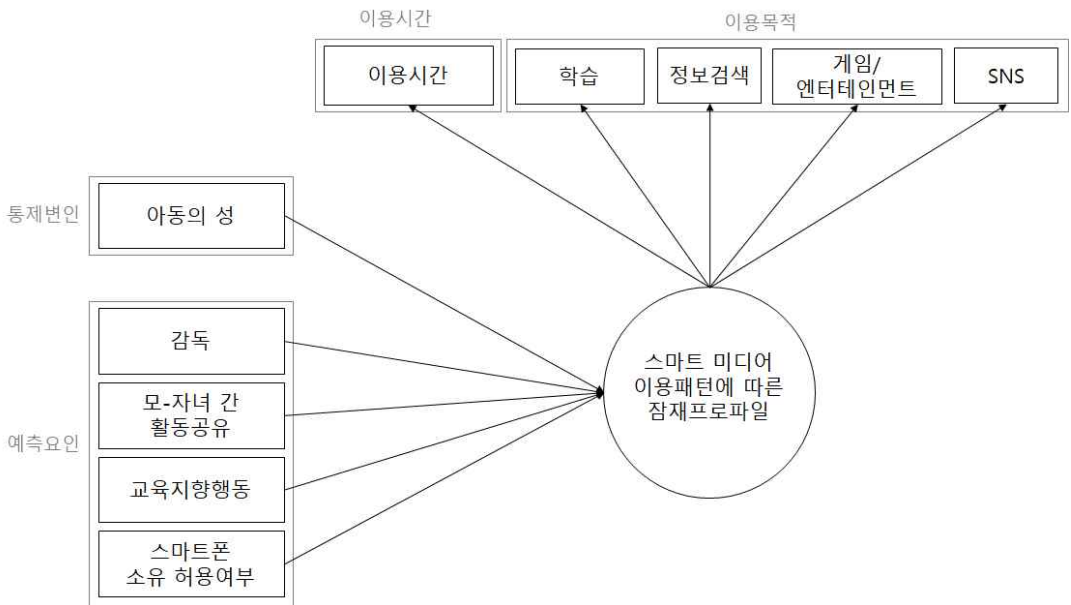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해 추적·조사한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9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1,466 가구로 전체 2,150 가구 가운데 70%의 패널 유지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은 대상 즉, 스마트 미디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0으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에는 응답하였으나 각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정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 1,315명이었

으며 남아 665명(51%), 여아 650명(49%)이었다. 본 연구대상 중 개인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아동은 702명(53%)이었고,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58.6분이며 최대 5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하며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PC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의 정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은 아동이 하루 평균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을 의미하며 한국아동패널연구 9차년도 면접조사 조사에서는 “OO(이)는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1일 평균 몇 시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어머니였으며, 보고된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이 사용한 1일 평균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목적

한국아동패널연구 9차년도 면접조사에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목적별 이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OO(이)가 하루 평균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동안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어머니가 5가지 목적 별로 각각 스마트 미디어 이용 정도를 %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이때, 각 항목의 합산이 100%가 되도록 작성하게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를 합한 후 게임/엔터테인먼트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모두 사용자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자극성이 있다는 면에서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콘텐츠이며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는 재미추구와 같은 한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Bian & Leung, 2015;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에 근거한 것이다.

### 3) 예측 요인

#### (1)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의 감독은 김미숙 등(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양육행동 문항 중 감독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는 “OO(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OO(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OO(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이다. 총 4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에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2였다.

## (2)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ECLS-K)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측정 문항을 기초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책읽기, 이야기, 퍼즐, 게임, 집안일, 학업 등을 자녀와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이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전혀 하지 않음(1점)에서 매일 함(4점)까지 4점 Likert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와 활동의 공유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현주 등(2003)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직접지도 감독 관리(4문항), 정보 수집(2문항), 교육 분위기 제공(3문항), 친구관계에서 성적중시(2문항), 타인지향태도(1문항), 인성함양 배려(2문항), 공부시간 확보노력(2문항), 건강관리(1문항)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OO(이)의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한다.”, “OO(이)가 좋은 학습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모범을 보인다.”가 있다. 총 17개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에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4)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는 “OO(이)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질문에 있음 또는 없음으로 어머니가 응답하게 되어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Mplus version 8.4를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목적과 관련하여 내재된 특성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보면서 모형 적합도 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ample-size Adjusted BIC (aBIC), Entropy,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MRT)와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검증, 잠재프로파일별 구성 비율 분포 등 통계적 수치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잠재프로파일 양상, 각 잠재집단의 개념적인 타당성, 그리고 각 이용패턴의 구분이 가지는 유의미한 해석가능성과 실제적용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집단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접근방법 (three-step approach) (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을 사용하였다. 3단계 접근방법은 잠재프로파일 모형에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이 추가될 때 잠재프로파일 수와 해석이 변화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서 분류 시 독립과 종속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으며 분류 오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독립과 종속변인이 없는 기본 혼합모형을 추정하는 1단계,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프로파일을 추정하는 2단계,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추정하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접근방법 중 하나인 R3step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독립변인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프로파일에 비해 다른 프로파일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검증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19).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 1) 잠재계층의 수 결정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목적(학습, 정보검색, 게임/엔터테인먼트, SNS)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1개의 잠재계층모형부터 순차적으로 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에 따라 모형 적합도 지수인 AIC, BIC, aBIC, entropy와 BLRT검증, 잠재프로파일별 구성 비율 등을 비교하였으며(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잠재프로파일 개수 별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aBIC 모두 감소하였는데 잠재프로파일 수가 5개일 때까지 모든 값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6개의 잠재계층모형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분류의 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잠재프로파일의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하며(Clark & Muthén, 2009), 일반적으로 .80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Muthén, 2004). 본 연구에서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90 이상의 수치를 보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BLRT와 VLMR-LRT가 유의한 경우에는 k집단이 k-1집단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2개, 3개, 4개의 잠재계층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개,

3개, 그리고 4개 잠재계층모형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적합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대상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계층의 분포율을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기준(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Nooner et al., 2010)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지수, Entropy, 통계적 유의도 검증,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 잠재프로파일은 4개일 때 각각의 프로파일들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정보준거지수, Entropy, VLMR-LRT, BLRT

No. of Profile	AIC	BIC	aBIC	Entropy	VLMR-LRT ( $p$ -value)	BLRT ( $p$ -value)
1	56487.040	56538.855	56507.090	-	-	-
2	54779.566	54862.472	54811.647	.969	.000	.000
3	53848.671	53962.667	53892.783	.983	.002	.000
4	53367.542	53512.627	53423.684	.978	.000	.000
5	52697.329	52873.503	52765.501	.978	.318	.000
6	52348.761	52556.025	52428.964	.983	.639	.000

## 2)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별 측정변인(이용시간, 이용목적)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고,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측정변인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표 2, 그림 1 참조). 먼저 잠재집단 1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30분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게임/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잠재집단 1은 ‘고이용·오락편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은 129명으로 전체 아동의 9.8%를 차지하여 네 개의 잠재집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아동이 속해있었다. 잠재집단 2는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 약 1시간 30분으로 ‘고이용·오락편중형’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게임/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NS를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잠재집단 2는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으로 이름 붙였다. 이 집단에 속한 아동은 48명(3.7%)으로 가장 적은 수의 아동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3은 스마트 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잠재집단 2인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집단이다. 그러나 이 집단은 잠재집단 2와는 다르게 학습을 목적으로 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이 집단을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4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은 약 81%로 나타나 대다수의 아동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하루 평균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약 44분으로 가장 적고, 학습, 정보검색, 게임/엔터테인먼트, SNS

모두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였으므로 ‘전반적 저이용형’으로 이름 붙였다.

표 2.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총 이용시간과 이용목적 별 시간 차이 (N = 1,315)

구분	Class1	Class2	Class3	Class4	F
	n = 129 (9.8%)	n = 48 (3.7%)	n = 71 (5.4%)	n = 1,067 (81.1%)	
	M(SD)	M(SD)	M(SD)	M(SD)	
총 이용시간(분)	150.00(42.09) <sup>a</sup>	95.62(49.46) <sup>b</sup>	84.93(34.76) <sup>b</sup>	44.08(18.73) <sup>c</sup>	772.41***
<b>이용목적 별 시간(분)</b>					
학습	6.32(10.77) <sup>a</sup>	5.84(10.21) <sup>a</sup>	57.15(15.57) <sup>b</sup>	6.39( 9.74) <sup>a</sup>	549.21***
정보검색	10.93(15.74) <sup>a</sup>	10.25(18.85) <sup>a</sup>	5.77( 7.82) <sup>b</sup>	4.81( 8.45) <sup>b</sup>	18.21***
게임/ 엔터테인먼트	129.54(43.45) <sup>a</sup>	48.00(40.00) <sup>b</sup>	20.32(26.31) <sup>c</sup>	31.42(20.13) <sup>d</sup>	625.62***
SNS	3.22( 5.09) <sup>a</sup>	31.53(12.80) <sup>b</sup>	1.69( 4.23) <sup>ac</sup>	1.47( 3.35) <sup>c</sup>	715.33***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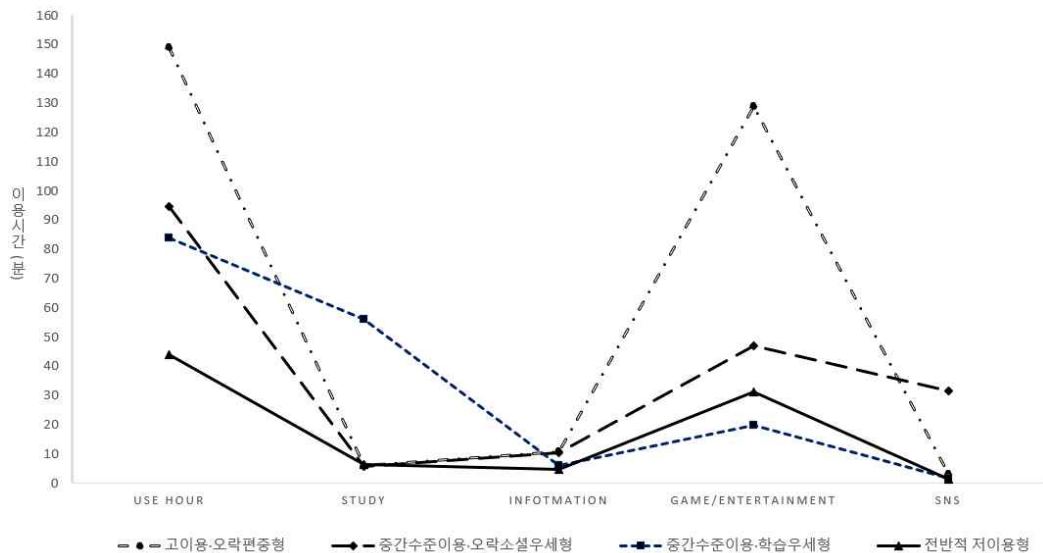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교 2학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 잠재프로파일

## 2. 예측요인이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도출된 4개의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3단계 접근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그리고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확인된 4개의 잠재집단(고이용·오락편중형,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전반적 저이용형)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자유도는 28이었으며 Loglikelihood의  $H_0$ 값은 -26655.771이었다. 주요 결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이용·오락편중형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참조집단과 나머지 세 잠재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통제 변인인 아동의 성,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과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아보다 남아일 때,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 $B = -1.54$ ,  $OR = .21$ ,  $p < .001$ ),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B = -1.00$ ,  $OR = .37$ ,  $p < .01$ ), 전반적 저이용형( $B = -.66$ ,  $OR = .52$ ,  $p < .01$ ) 보다는 고이용·오락편중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이용·오락편중형보다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B = .10$ ,  $OR = 1.10$ ,  $p < .01$ ).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이용·오락편중형보다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B = 16.16$ ,  $OR = 15.76$ ,  $p < .001$ ),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B = -1.61$ ,  $OR = .20$ ,  $p < .001$ )과 전반적 저이용형( $B = -1.02$ ,  $OR = .36$ ,  $p < .001$ )보다는 고이용·오락편중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을 참조집단으로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과 전반적 저이용형을 비교했을 때 아동의 성, 어머니의 감독과 교육지향행동,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집단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 변인을 먼저 살펴보면, 여아보다 남아인 경우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보다 전반적 저이용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B = .88$ ,  $OR = 2.42$ ,  $p < .05$ ). 다음으로,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보다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B = .36$ ,  $OR = 1.09$ ,  $p < .01$ )과 전반적 저이용형( $B = .18$ ,  $OR = 1.20$ ,  $p < .05$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형보다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B = .08$ ,  $OR = 1.09$ ,  $p < .05$ ).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B = -17.77$ ,  $OR = .00$ ,  $p < .001$ )과 전반적 저이용형( $B = -17.18$ ,  $OR = .00$ ,  $p < .001$ )보다는 중간수준·오락소셜우세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과 전반적 저이용형의 분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요인은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과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B = -.07$ ,  $OR = 1.07$ ,  $p < .01$ ) 전반적 저이용형보다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보다는 전반적 저이용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B = .60$ ,  $OR = .55$ ,  $p < .05$ ).

표 3.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 잠재프로파일 예측요인 검증 (N = 1,315)

구분	Model 1 참조집단 (고이용·오락편중형)						Model 2 참조집단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				Model 3 참조집단 (중간수준이용· 학습우세형)	
	중간수준이용· 오락소설우세형		중간수준이용· 학습우세형		전반적 저이용형		중간수준이용· 학습우세형		전반적 저이용형		전반적 저이용형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아동의 성 <sup>a</sup>	-1.54*** (.41)	.21	-1.00** (.32)	.37	-.66** (.20)	.52	.54 (.45)	1.72	.88* (.37)	2.42	.34 (.27)	.71
감독	-.13 (.12)	.88	.23 (.12)	1.26	.05 (.07)	1.05	.36** (.14)	1.09	.18* (.09)	1.20	-.18 (.10)	1.20
모-자녀 간 활동공유	.03 (.05)	1.03	.05 (.04)	1.05	.02 (.03)	1.02	.02 (.05)	1.02	-.01 (.04)	.99	-.03 (.03)	1.03
교육지향행동	.01 (.04)	1.02	.10** (.03)	1.10	.03 (.02)	1.03	.08* (.14)	1.09	.02 (.03)	1.02	-.07** (.02)	1.07
스마트폰 소유허용여부 <sup>b</sup>	16.16*** (.33)	15.76	-1.61*** (.33)	.20	-1.02*** (.21)	.36	-17.77*** (.00)	.00	-17.18*** (.27)	.00	.60* (.27)	.55

a 참조집단= 여아

b 참조집단=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

\*  $p < .05$ , \*\*  $p < .01$ , \*\*\*  $p < .0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에 함께 고려하여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 그리고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목적에 근거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이 4개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잠재프로파일은 이용시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고이용·오락편중형’,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 ‘전반적 저이용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반적 저이용형(81.1%)이었고, 고이용·오락편중형(9.8%),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5.4%),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3.7%)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이용·오락편중형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50분으로 나타나 다른 세 개의 집단에 비해 이용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게임/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였다.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과 중간수준이용·학습우

세형은 이용시간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주된 이용목적이 서로 달랐다. 중간수준이 용·오락소셜우세형은 고이용·오락편중형 다음으로 게임/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SNS 사용 비중 면에서는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중간수준이 용·학습우세형은 정보검색, 게임/엔터테인먼트, SNS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저이용형은 하루 평균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약 44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학습, 정보검색, 게임/엔터테인먼트, SNS 중 어떤 목적으로도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과 목적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만약 이용시간만을 다루었다면 간과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인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은 함께 분석한 결과, 아동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의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패턴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아주 많으면 지나치게 오락에 편중되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고(고이용·오락편중형) 이용시간이 적으면 학습, 정보검색, 오락, SNS를 전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전반적 저이용형)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이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게임/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과도한 몰입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또래에 비해 이용시간이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중간수준인 경우, 두 개의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는데 하나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학습을 현저하게 많이 하는 집단이며 또 하나는 학습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용시간의 대부분은 SNS와 오락을 하는 집단이었다. 이와 같이 중간수준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지만 이용목적이 현저하게 다른 집단들이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만을 기준으로 게임의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개입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중간수준·오락소셜우세형과 같이 주된 이용목적이 오락과 소셜네트워킹인 경우에는 아동으로 하여금 미디어 이용에 대해 과도한 몰입과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으므로(엄명용, 김태웅, 2010; 최정원 등, 2020) 현재는 염려할 정도로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미디어를 과다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시간 차원에서만 보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중간정도인 이용시간을 보인다고 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기 보다는 그 시간동안 어떠한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장 적으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목적에서의 이용정도가 낮은 패턴을 보인 전반적 저이용형에 속한 아동들이 가장 높은 비율(81.1%)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은 이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목적 하위영역과 목적별 이용의 시간적 차원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3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에서 전체 이용시간이 평균 52분이며,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목적별 이용 빈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소극적 활용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이 41.6%로 보고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Suk et al., 2017)에서 정보검색, 커뮤니케이션, 학습의 이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소극적활용형이 17.4%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 저이용형과 유사한 집단에 속한 상급 아동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전반적 저이용형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아직 스마트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정도였던 본 연구결과가 반영하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대부분(81.2%)은 개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김윤희, 2018)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은 저학년 아동에 비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는 이용자의 동기와 취향에 따라 이용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호영, 최항섭, 오주현, 2011)을 고려해볼 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 미디어를 적은 시간 이용하는 동안 모든 목적들을 골고루 적게 이용하는 집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감독, 교육지향행동,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감독을 살펴보면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즉 아동이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머니가 잘 알고 있을수록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우세정보다는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이나 전반적 저이용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주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만 적당한 수준으로 이용하는 반면 다른 모든 이용목적 면에서 이용시간이 적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오락과 SNS 이용보다는 학습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선행연구결과(Heim et al., 2007; Vaala & Bleakly, 2015)와 일관성 있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자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 어머니들은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활동도 면밀히 관찰하여 이용시간을 적절하게 규제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적 내용, 게임,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 온라인 상에서의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Lin, & Wu, 2009; Xu, Turel, & Yuan, 2012).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오락과 소셜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는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몰입과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우려하여 이를 중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가 스마트 미디어를 전반적으로 덜 이용하게끔 하거나 이용하게 하더라도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은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에 기대하는 수준이 높고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은 다른 이용패턴보다는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로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며, 학습은 어머니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마트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지향행동을 통해 학습을 중요시 하는 가정 내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자녀 스스로 스마트 미디어를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는 모든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데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면 중간수준이용·학습우세형보다는 고이용·오락편중형,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우세형, 전반적 저이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고이용·오락편중형과 전반적 저이용형보다는 중간수준이용·오락소설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 개인의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면 아동은 성인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자신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생은 업무나 생활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인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놀이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스마트폰을 소유한 아동은 학습을 위한 목적보다는 주로 즐거움과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전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오락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게 하지만 특히, 많은 시간동안 오락에 편중되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락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계정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스마트폰 보다는 개인의 스마트폰을 소유할 경우 아동이 SNS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SNS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스마트폰을 소유하여 SNS에 대한 즉시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때 SNS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동에게 개인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오락에 편중되어 사용하기보다는 오락과 소셜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에 게임이나 SNS 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접근에 있어 어머니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에게 개인 스마트폰 소유를 허락한 경우에는 현재 염려할 수준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이나 중독의 위험요소가 포함된 게임과 동영상이나 SNS를 이용하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자녀 간 활동공유는 모든 잠재집단의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 활동 공유를 활발하게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미디어 활동도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중 하나로 포함되어 적은 시간 이용하면서 스마트 미디어 내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생활공간 중심에 설치되어있으며 공동 이용이 가능한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개인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스마트 미디어의 특성(양일영, 이수영, 2011)을 고려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기와 취향에 따라 이용하는 형태가 다르다(이호영 등, 2011). 어머니와 자녀는 뉴스, 쇼핑, 놀이 등과 같이 서로 선호하거나 관심 있는 활동들이 모두 다르므로 개인화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할 때, 각자가 선호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개인화의 의미가 강한 스마트 미디어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와 같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함께 이용하는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Connell, Lauricella 그리고 Wartella(2015)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인 아동의 성은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아인 경우, 다른 세 잠재집단보다는 고이용·오락편중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아는 여아에 비해 오락을 목적으로 과도한 시간 동안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목적 면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게임 앱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윤화, 2018; 이수정, 2014; Genteile, 2009; Kostyrka-Allchorne et al., 2017)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남아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이용지도에 있어서 과도한 시간동안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전반적 저이용형보다 중간수준이용·오락소셜편중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들이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오락과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목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록 현재 스마트 미디어를 염려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몰입을 일으킬 수 있는 오락과 소셜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이용은 이후에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어떠한 특징들이 이와 같은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면 아동의 성에 따른 효과적인 미디어 이용 지도방안을 고안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가진 몇 가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루 평균 스마트 미디어 전체 이용시간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용목적 별 이용시간은 스마트 미디어 전체 이용시간에서 각 목적별 이용정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 것을 시간으로 환산 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이용한 시간의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지만 회고식 응답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스마트 미디어의 특성 상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전체 이용시간과 목적별 이용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 미디어가 아동의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용시간을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시간대별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하루 24시간 동안 미디어 이용행동을 이용매체, 연결방법, 이용목적, 이용장소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하는 미디어 다이어리 분석(오윤석, 2017)이나 스마트기기에서 실행한 어플 목록과 어플 별 이용시간,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스마트기기 모니터링 어플 설치 등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의 한 시점에서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시작점에 있는 아동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전반적 저이용형이 독자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기에는 어떤 잠재집단으로 전이되는지 확인한다면 전반적 저이용형에 속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디어 이용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중간수준·오락소셜우세형이 이후시기에 과도하게 오락과 SNS를 이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질 수 있음을 실제로 검증하는 것 또한 현재는 염려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중간수준·오락소셜우세형에 어머니가 어떠한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패널데이터 자료에는 스마트 미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도 감독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 어머니와 자녀 간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보다 더 직접적인 미디어 이용중재행동인 스마트 미디어 지도 감독과 미디어 이용 시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들이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개입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의 예측변인 중 하나로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미디어 기기 중에서도 스마트폰 소유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은 스마트폰이 스마트 미디어 중 가장 보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2020) 아동들의 사용 비율 역시 가장 높다는 점에서 다른 기기에 비해 스마트폰 소유 여부가 미디어 이용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시간간격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가 아동 미디어 이용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미디어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외에도 아동이 소유할 가능성과 사용빈도가 높은 다른 스마트 미디어 기기들의 허용여부까지 확대하여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2016년도에 수집된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약 5년이 경과한 현재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20년도에 실시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6년 53.7%에서 2020년에는 92%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부터 5G 스마트폰이 급부상하였다(신지형 등, 2020).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근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있는 자료가 수집된다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용시간은 증가되고 이용목적은 다양화 되어 보다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도방법을 고안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마트폰 소유 허용여부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스마트 미디어 이용의 통제가 이후 게임이나 SNS에 과몰입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의 문제적 이용패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어머니의 감독과 교육지향행동은 아동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바람직한 스마트 미디어 이용을 위해 이 시기의 중요한 환경적 맥락인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예측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적인 특성 등 다양한 예측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연구보고서 NIA VIII-RSE-C-19067).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 CART\\_0000000113015&type=A1](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 CART_0000000113015&type=A1)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연구보고서 NIA VIII-RSE-A-20017).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 CART\\_0000000113023&type=A1](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 CART_0000000113023&type=A1)에서 2021년 5월 19일 인출
- 구현영, 김은정 (2015).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영향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1), 55-63. doi:10.4094/chnr.2015.21.1.55

-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3-92).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type=all&seq=28724>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김보미, 장경은, 오현미 (2019).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의조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교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57-73. doi:10.14698/jkce.2019.15.01.057
- 김윤화 (2018).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8(20), 1-7.
- 김종민, 최은아 (2019).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doi:10.21183/kjcm.2019.12.18.4.197
- 김지현, 신혜영 (2013).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 내 인터넷,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실태. **사이버교육연구**, 7(2), 97-117
- 노연경 (2019).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 분류와 예측 및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이 검증. **교육문제연구**, 32(3), 261-287.
- 민미희 (2015).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73-89. doi:10.14698/jkce.2015.11.073
- 박현지, 이강원, 진승후 (2020).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Post-Digital)** (연구보고서 NRF-20141223-1-20). 서울: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41735](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41735)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초등학교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정서 및 행동의 문제. **신경정신의학**, 53(5), 320-326. doi:10.4306/jknpa.2014.53.5.320
- 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책자료 20-15-02).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4973>에서 2021년 4월 12일 인출
- 양일영, 이수영 (2011). 이용 동기에 기반한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109-139.
- 엄명용, 김태웅 (2010). 디지털 콘텐츠 몰입경험: 온라인게임 사례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209-216.
- 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패턴에 따른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사용패턴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스마트 기기 중독. **아동학회지**, 41(1), 47-60. doi:10.5723/kjcs.2020.41.1.47
- 오윤석 (2017). 미디어 동시 이용행태 분석: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KISDI STAT Report**, 17(8), 1-5.
- 이귀옥 (202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궤적과 학교적응 궤적 간의 인과적 중단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05-124. doi:10.36431/JPE.12.1.6

- 이성대, 염동문 (2012).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4), 163-181.
- 이수정 (20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7(6), 1-8. doi:10.32431/kace.2014.17.6.001
-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연구보고서 2017-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266](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1&manage_idx=30&board_idx=28266)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연구보고서 13-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O3aFj6GGWW6WZ3z20i95P2&cont\\_idx=199&menu\\_nix=8V15Pij5&edomweivgp=R](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O3aFj6GGWW6WZ3z20i95P2&cont_idx=199&menu_nix=8V15Pij5&edomweivgp=R)에서 2021년 5월 19일 인출
- 이창호, 김기현 (2017).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과제번호. 17-R2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brdrtr/boardt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tab=](https://www.nypi.re.kr/brdrtr/boardt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tab=)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이호영, 최항섭, 오주현 (2011).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 정책**(연구보고서 11-07). 경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8fe3e5ce30d04e50ffe0bdc3ef48d41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8fe3e5ce30d04e50ffe0bdc3ef48d419)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임양미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63-174.
- 전은옥, 최나야 (2017).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한국보육학회지**, 17(1), 75-98. doi:10.21213/kjcec.2017.17.1.75
- 최정원, 전현희, 오현정, 홍세희 (2020).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화 및 스마트폰 의존도와 의 관계 분석- 연락 및 sns 사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331-354. doi:10.21509/KJYS.2020.05.27.5.331
- 한효정, 장영은 (2020). 가족여가 및 가족의레가 아동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2), 141-161. doi:10.13049/kfwa.2020.25.2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현주, 이재분, 이혜영 (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연구보고서 RR-2003-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riss.kr/index.do>에서 2021년 1월 23일 인출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Barron, B., Martin, C. K., Takeuchi, L., & Fithian, R. (2009). Parents as learning partners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fl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d Media*, 1(2), 55-77.

- doi:10.1162/IJLM.2009.0021
-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doi:10.1177/0894439314528779
- Clark, S. L., & Muthén, B.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download/relatinglca.pdf>
- Coleman, J. (2008, March). *Theories of youth development: Controversies of age and stage*. Paper presented at ESRC seminar, Oxford, UK.
- Connell, S. L., Lauricella, A. R., & Wartella, E. (2015). Parental co-use of media technology with their young children in the USA.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9(1), 5-21, doi:10.1080/17482798.2015.997440
- Genteile, D. (2009). Pathological video-game use among youth age 8 to 18: A nation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20(5), 594-602. doi:10.1111/j.1467-9280.2009.02340.x
- Gentile, D. A., Coyne, S., & Walsh, D. A. (2011). Media violence, physical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school age childre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Aggressive Behavior*, 37(2), 193-206. doi:10.1002/ab.20380
- Heim, J., Brandtzieg, P. B., Kaare, B. H., Endestad, T., & Torgersen, L. (2007). Children's usage of media technologies and psychosocial factors. *New Media & Society*, 9(3), 425-454. doi:10.1177/1461444807076971
- Hill, K. G., White, H. R., Chung, I.-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1.x
- Kostyrka-Allchorne, K., Cooper, N. R., & Simpson, A. (2017). Touchscreen generation: Children's current media use, parental supervision methods and attitudes towards contemporary media. *Acta Paediatrica*, 106(4), 654-662. doi:10.1111/apa.13707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doi:10.1353/mpq.2006.0029
- Lin, C. H., Lin, S. H., & Wu, C. P. (2009).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leisure boredom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ce*, 44(176), 993-1004.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7).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9(4), 671-696. doi:10.1177/1461444807080335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Nathanson, A. I. (2015). Media and the family: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ren*

- and Media*, 9(1), 133-139. doi:10.1080/17482798.2015.997145
-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 E. D., et al.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doi:10.1016/j.chiabu.2008.10.007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doi:10.1016/j.cedpsych.2006.10.003
- Sanders, W., Parent, J., Forehand, R., Sullivan, A. D., & Jones, D. J. (2016). Parental perceptions of technology and technology focused parenting: Associations with youth screen tim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4, 28-38. doi:10.1016/j.appdev.2016.02.005
- Simpkins, S. D., Davis-Kean, P. E., & Eccles, J. S. (2005). Parents' socializing behavior and children's participation in math, science, and computer out-of-school activiti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1), 14-30. doi:10.1207/s1532480xads0901\_3
- Suk, Y., Cho, Y. H., & Jeong, D. H. (2017). Profil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mart device usage.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18(1), 27-47.
- Vaala, S. E., & Bleakley, A. (2015). Monitoring, mediating, and modeling: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computer and internet us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9(1), 40-57. doi:10.1080/17482798.2015.997103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doi:10.1093/pan/mpq025
- Xu, Z., Turel, O., & Yuan, Y. (2012). Online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Motivation and prevention factor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3), 321-340. doi:10.1057/ejis.2011.56

논문투고: 21.02.15  
수정원고접수: 21.05.21  
최종게재결정: 21.06.07